

육계유통의 현실과 발전 방안



이 종 철

- 하니축산 대표
- 본회 논산육계분회장

1. 육계업 주변의 변화

TV를 통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풍경에서 가끔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농가에서 키운 닭을 소쿠리나 자루에 넣어 5일장에서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고, 수집상이 한쪽에는 물그릇과 모이그릇을 부착한 나무나 철망으로 만든 어리장에 몇마리씩 넣어 운반하여 팔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도계하여 냉장, 냉동된 닭고기와 외국에서 수입된 부분육, 그리고 뼈바른 닭고기가 소비자나 음식점 또는 가공 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다.

모든 재화는 물물교환에서 시작하여 화폐로 교환기능이 발달되었고, 이제는 현금이 아닌 십만원권 정액 수표도 받지않으려던 시절이 바로 엇그제 같았는데 이제 우리네 양계장에서는

시세도 모르고 유통상인에게 출하하며 그 대금 또한 정당한 물품대금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며 받아야 하고, 이 대금 중 상당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으로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과 더불어 물자가 극히 부족했던 시절이 지나고 각종 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수립으로 생활물자의 수요공급이 적당히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며 육류의 소비증가가 생산증가를 상회할 때까지는 우리네 양계장에서 가끔 정보가 빠른 중간상인의 농간에 피해를 보는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하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농수축산물의 급격한 시세변화 특성 때문에 가끔씩 큰 돈을 만져 볼 수도 있었지만 이제 육계 생산기반은 육계소비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더욱이 WTO체제의 출범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허물어져 닭고기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수익성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수입개방 시대로 변화되어 있다.

2. 육계시장의 현실

육계 유통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닭 유통이 도계품 유통으로 바뀌었고 도로나 운송수단 및 정보수집 방법의 발달로 다량 구매가 가능하면서 대형화되었고, 시세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시의 인근 혹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가 그 지역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에서 시세가 유리하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며 광역화 되었다.

또한, 상인과 대형상인, 대형상인과 도계장, 일반도계장과 계열화 사업으로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대형 도계장간에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의 상황에 돌입하였고, 이제는 외국의 초대형 육계계열 생산업체와, 이윤을 목적으로 생겨나는 닭고기 수입상까지 가세하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육계유통의 현실

육계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던 시절에도 간간히 시세의 심한 등락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닭을 사육한 쪽이 유



리한 위치에서 닭을 출하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닭을 유통시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유통수수료가 상인의 부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생산과 소비가 비슷하거나 생산이 소비를 웃돌기 시작하면서 유통수수료는 상인과 생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즉 여차하면 생산이 과잉될 수 있는 모든 여건(즉, 원종계 수입 증가, 종계장 시설 증가, 병아리 생산 증가, 육계사육시설 증가 및 위탁사육 농가의 점유율 상승 등)이 갖추어지면서 이제는 육계출하에 대한 유통수수료가 상인보다는 생산농가에게 부담이 많아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유통수수료를 생산농가에서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 가능케 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생산농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인은 상인대로 어려움이 극심하며 생산조절 및

경기회복 등 뚜렷한 뒷받침이 없는 한 상인들의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그들은 상권확보 유지를 위하여 많은 미수금을 감수해야 하며, 최소한의 마진을 부쳐 판매가를 책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 이하의 덤핑판매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소매상을 위시한 각종 도계육 납품처는 좀더 유리하게 도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육계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동안 육계생산량 증가, 시세 폭락, 출하 지연시 막대한 사육경비 발생과 출하의 어려움 등이 반복되면서 현금거래가 외상거래로, 그것도 일주일 정도의 단기 외상에서 심지어는 150일까지의 장기 외상거래가 서서히 관행화되면서, 결국 적자 생존의 유전학적 원리대로 강한 상인은 살아나고 상당수의 상인들은 생계 혹은 도계육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채 쓰러질 수 밖에 없었으며, 한 수 더 떠 육계의 외상거래를 기회로 적은 자본으로 육계유통에 뛰어들어 덤핑으로 닭값을 현금화하여 종적을 감추는 사기꾼까지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현실이다.

생산 농가의 육계출하에 관여하고 있는 육계유통 사무실은 지난시절 위험부담이 없는 현금거래와 비교할 때, 그 당시 농가로부터의 육계출하 의뢰는 소득과 직결되었으나, 일부 상회(사양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결제 빠른 상회)를 제외한 최근의 외상거래 그것도 장기 외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출하의뢰는 소득보다는 부실채권 발생이라는 위험성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주변을 보면 잘 알려진 도계장, 대형상

인, 육계유통사무실 등이 이러한 이유로 육계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기약도 못하며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최근 육계출하 의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며, 육계유통사업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까지도 형성되고 있고 생산농가 또는 유통수수료가 과도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는 직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구매처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어쩔 수 없이 육계출하를 의뢰하는 실정인 것이다.

4. 육계산지 시세의 결정

육계의 산지 시세는 소나 돼지의 경우처럼 공판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어 전국 소, 돼지 시세의 지표가 매일 매일 게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가 어두웠고, 교통 통신 시설이 좋지 않았던 시절 각 지역의 유통상인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감각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지역마다 상당한 시세차이가 있었지만 생물이라는 특성상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 부락에 한 대뿐인 자석식 전화시대에서 국내 어디서나 세계 어느 곳으로도 즉시 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과, 자전거에서 대형 화물차로, 소로길에서 대형화물 트럭이 양계장은 물론 계사 안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급격한 변화속에서 육계산지 시세는 전국적으로 유통사무실간에 협의, 조절, 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크고 작은 많은 육계유통에 관여하는 사무실 중에서 육계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협의체인 「전국육계유통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시세결정을 주도하여 왔으나 시세의 협의 결정

원칙이 없어 농가에서는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하하고 오후 늦게 혹은 다음날 시세를 통보 받으며 심한 경우 며칠후 가격을 정정하는 사례까지도 있었으며, 물량이 부족하면서도 시세가 떨어지고 물량이 밀리면서도 시세가 오르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통협의회에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친 결과 좀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시세를 제시하며 육계업의 한 분야로서 육계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다음의 방법으로 시세를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전회원은 오전 11시 30분까지 당일 희망시세를 접수시킬 것

2) 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전일대비 등락폭을 100원/일 이내로 변동하여 희망시세를 제시할 것.

3) 협의회에서는 접수된 전 회원의 희망시세를 취합. 5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 당일 확정된 중부권 시세와 각 회원이 접수시킨 희망시세를 12시를 기하여 각 회원에게 송부해줄 것.

4) 가급적 팩스에 송부된 확정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주변 회원과 협의하여 재 조정할 수도 있음.

5)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팩스 내용 중 확정된 중부권 시세 이외의 사항은 대외비로 할 것.

상기와 같이 결의 후 199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시세가 당일 12시 전후에 공시되어 육계출하시 시세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각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느 한쪽의 상황에 치우치지 않으며 시세의 변동폭이 축소되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세의 급변이 예상될 경우 유통협의회 시세가 지켜지기 어려우며, 특히 시세하락은 견제하기 어려우나 시세 상승만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각 지역의 회원간 의견 조정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취지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계산물의 공판장이 설립 운영되기 전까지는 다른 묘안이 없지 않나 사료된다.

5. 이중시세

유통협의회에서 시세 공시를 하면서 이중시세가 형성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이중시세의 발생 동기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자.

시세가 오를 때는 공시시세가 철저히 지켜지고 이때는 신용이 없는 도계장을 포함한 상인들은 닭의 구매가 어려워져 시세보다 높게 혹은 현금구입 조건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세가 안정세에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시세가 지켜지나, 시세하락의 조짐이 보이면 여지없이 이중시세의 분위기가 나타난다.

물량의 소비측면에서 보면, 상승국면에서 오늘의 물량확보는 감량 및 품질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인상된 시세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가수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보합세일 때에는 적정 재고를 유지하다가, 약세가 보이면 구매를 최소로 하여 재고 정리를 하는 것은 재고가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세가 오르면 출하 기피와 마찬가지로

지로 재고확보 때문에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느끼고 시세가 내리면 홍수출하와 더불어 상인의 재고 정리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는 한 실수요자의 소비 증감이 그렇게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시세가 상승할 때 닭을 구하지 못해 장사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문제는 시세하락이 예상될 때 양계 농가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예측하고 유통사무실과 협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출하하기 위하여 공시시세보다 낮은 시세라도 출하 의뢰가 이루어지고, 유통사무실에서는 자기 거래처의 닭을 조금이라도 조기에 출하해주기 위하여 상인들과 협의하게 되며, 상인은 걸려오는 출하요청 전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흐름을 파악, 다른 지역, 다른 유통 사무실을 들먹이며 낮은 시세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시시세 보다 낮은 시세로 은밀히 결정되고 이것은 전체 사양가의 손실과는 아랑곳 없이 급속한 시세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데, 하락시 다른 농가에서는 시세를 고집하여 주기를 원하며, 나는 시세를 절충하여서라도 출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생물유통상 피할 수 없는 특성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시세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공시시세대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하며, 이중시세 폭이 자꾸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하루변동할 수 있는 시세를 제한(100원/일 이내)하는 유통협의회 시세가 미처 실거래 시세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점은 하락이 멈추었을 때 바로 공시 시세로 접근하여 시세의 안

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육계유통의 발전

육계유통은 상인과 육계사육농가와의 중간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그 기능을 다해야 하나 육계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유통은 구매를 요청하기 위하여 상인과 가까워지고, 육계생산량이 소비량 보다 적으면 유통은 농장과 밀접해질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속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세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생산자가 대접을 받기 위하여는 공급이 과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면 시세는 폭등하며, 유통구조가 상인보다는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지만 자연히 생산증가를 위한 투자가 시작되며, 무역자유화에 따른 닭고기 수입증가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은 국내 수요량을 파악, 생산조절에 참여하여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수요와 공급량 균형이 맞는다면 육계유통 또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으며 공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육계유통의 발전이 있으려면 수요예측과 생산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한양계협회의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관적인 본 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계**